

2025년 제16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INCHEON SEOGU CULTURAL CENTER



발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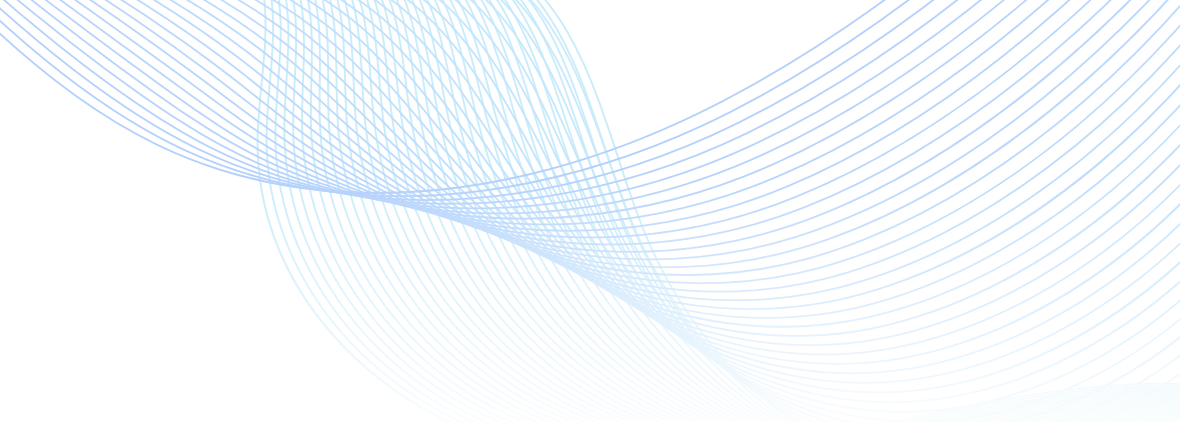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원장 정군섭입니다.

무더운 여름, 7월의 햇살 아래 2025년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예선을 시작으로, 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의 끝자락에 본선이 열렸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며, 허암예술제를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은 허암예술제는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 정신을 기리고자 시작된 행사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백일장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선 시제 하나하나에는 삶에 대한 감각과 시선이 담겨 있었고, 본선에서는 그 열정이 더욱 빛을 발하여 인상 깊은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어린이 미술대회에서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아이들만의 다채로운 상상력과 자유로운 표현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려낸 세계는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우리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이번 우수작품집에는 백일장과 미술대회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글과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을 펼치는 모든 분들에게도 그 감동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좋은 작품을 보내주신 참가자 여러분,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매년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시는 해주정씨 대중친회, 서인천 농협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허암예술제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작의 장이자,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예술제로 오래도록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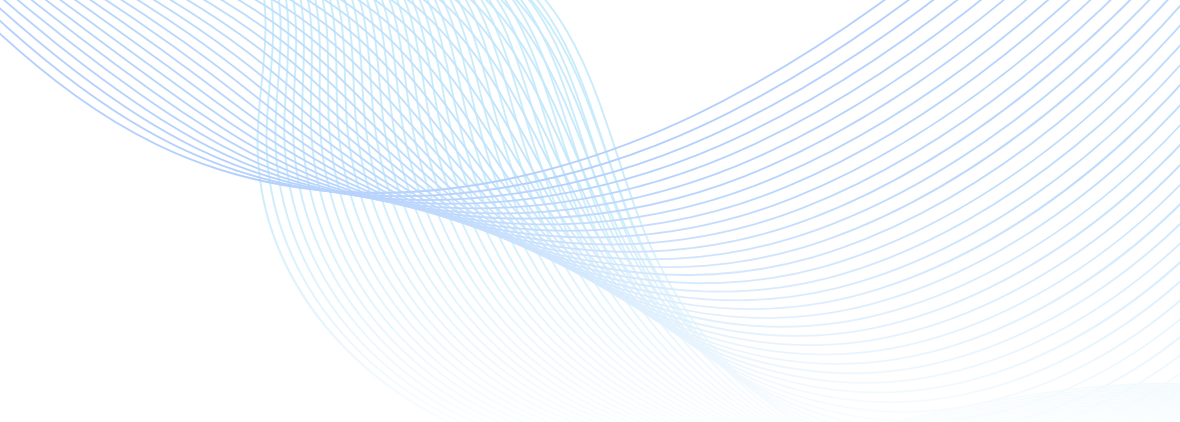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강범석입니다.

제16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부터 가을의 끝자락까지,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예술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줍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이 한 줄의 문장, 한 장의 그림으로 피어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한 걸음 성장합니다.

창작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고 귀한 가치입니다. 이번 작품집에서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피어난 귀한 결과물들이 담겨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상의 기쁨을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아쉽게 수상하지 못한 분들께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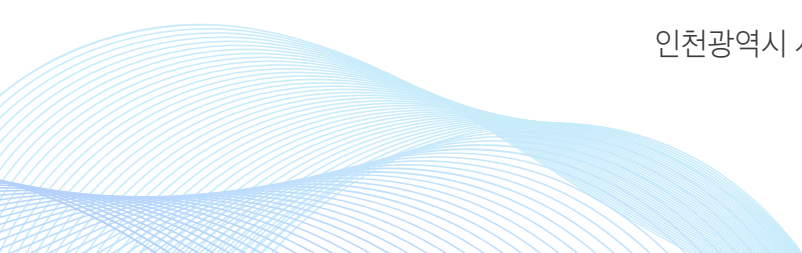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 정신을 오늘의 예술로 되살리는 이 뜻깊은 예술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고, 나눔과 공감의 자리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우수작품집이 그 아름다운 걸음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하며, 참가자 여러분과 애써주신 인천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범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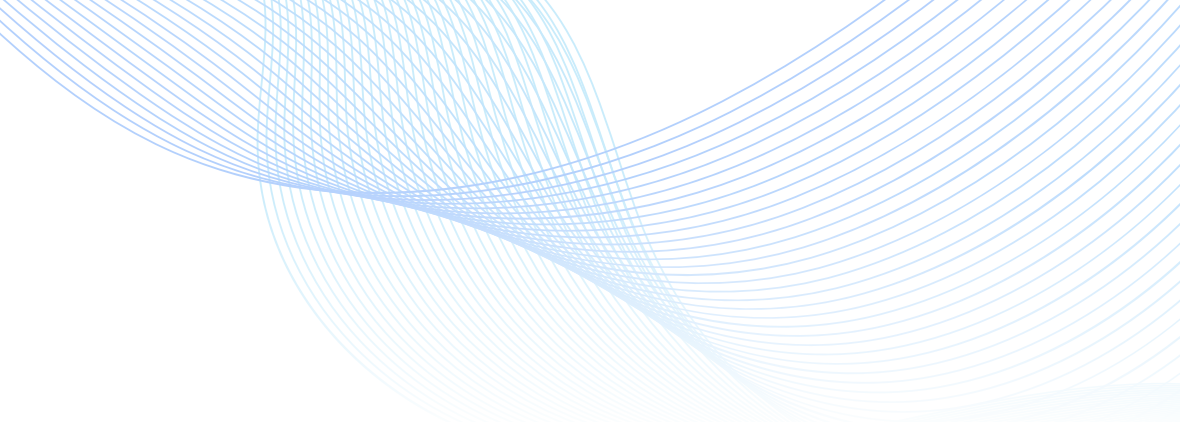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장 송승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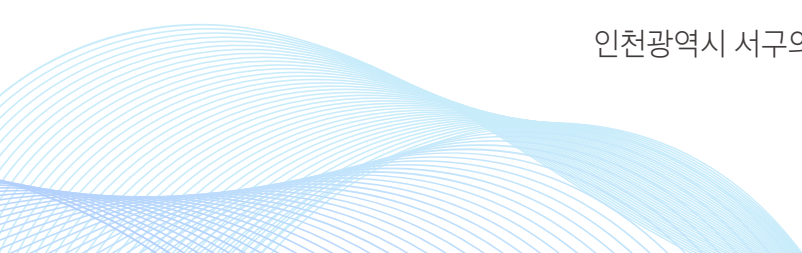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서구에서 제16회를 맞은 허암예술제가 올해도 성대한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전국 백일장과 어린이 미술대회를 통해 모인 우수작품들이 한 권의 책으로 엮여 나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허암의 정신을 전하고 있는 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허암 선생님은 어려운 시절에도 선비의 정신을 잃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올곧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허암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며 글과 그림을 남기는 것은 글이 마음의 모양을 드러내고, 그림이 감정의 빛깔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을 허암이라는 등불을 따라 걸어갑니다.



이제 서구는 분구를 앞두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의 예술정신과 문화적 교류는 나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어지며,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허암예술제가 앞으로도 두 지역 모두의 자부심을 높이고, 창작과 예술을 통해 서로를 잇는 소중한 다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작품집처럼 구민 여러분과 전국의 문인들이 함께하는 마음의 흔적이 계속해서 쌓여 우리 구의 문화적 토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며, 더 많은 창작의 씨앗을 틔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도시 서구, 먼 옛날 당당하게 자신을 길을 걸어간 허암 선생님의 길처럼 걸어가기를 응원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송 승 환**



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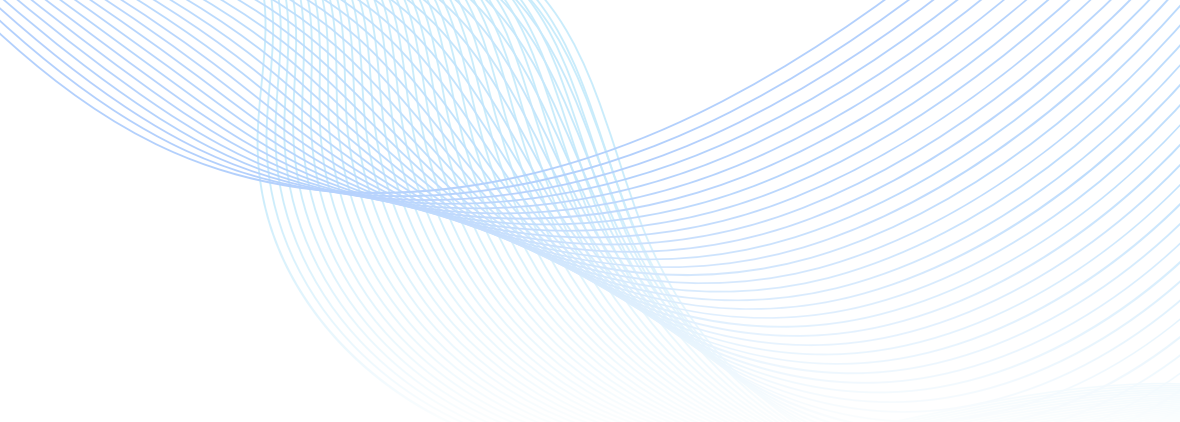
안녕하십니까?

소통·공감·존중으로 행복한 서부 교육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입니다.

제16회 허암예술제의 개최와 함께 우수작품집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광스러운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결한 선비정신과 깊은 학문의 길을 보여주신 허암 정희량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마련된 이번 허암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에서 참가자들의 글 한 편, 한 편에 담긴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한데 모여 ‘우수작품집’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수상자 개인의 영광을 넘어, 우리 사회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수작품집에 실린 모든 작품들이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또 다른 아름다운 생각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찬란한 글쓰기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글쓰기라는 멋진 여정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이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더 많은 이야기들을 세상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허암예술제를 개최하고 우수작품집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인천서구문화원 정군섭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용렬**

허암 정희량 虛庵 鄭希良

정희량은(1469~1502)은 서울 출생으로, 본관은 해주, 자는 순부(淳夫), 호는 허암(虛庵)이다. 조선 중기 사림 학파를 이끈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으로, 1491년(성종 22) 생원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다. 성종 승하 후 궁중에서 불교의 재(齎)를 올리자 이를 금하는 상소를 올려 해수에 유배되었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급제, 이듬해 사관인 예문관 검열이 되고, 외교문서의 교정 및 수정을 담당하던 승문원의 권지부정자에 임용되었다. 1497년 예문관 대교로 연산군에게 임금의 행해야 할 10개조의 상소를 올렸고, 다음 해 선무랑 예문관 봉교로서 『성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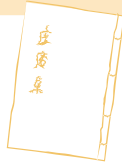
그러나 1498년 사초문제로 무오사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탄핵을 받아 장(杖) 100대, 유(流) 3,000리의 처벌을 받고 의주에 유배되었다가, 1500년 5월 김해로 옮겨졌다. 다음 해 풀려난 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에서 시묘하다가, 앞으로 닥쳐올 갑자사화를 예견하고 조강(祖江)에 신발과 의복을 남겨둔 채 사라져 허암산에 수년 간 은거하였다. 이때 정희량의 아우이자, 경상좌도수군우후를 지낸 정희신(鄭希信)이 형을 돌보기 위해 지금의 검암동에 입거하였고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정희량은 후일 묘향산 등을 유랑하다 평북 정주에 입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정희량은 문학에 조예가 있었고, 음양학(陰陽學)에도 밝았는데, 실록에는 “그(정희량)가 복서(卜書)보기를 좋아하며 매양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길(吉)한가 흉(凶)한가를 먼저 점쳤었다.”고 기록 하였다.



허암 정희량 유허지 (인천광역시 기념물)

『허암집』



『허암집』은 허암 정희량의 학문과 일생을 기록한 문집으로 조선시대에 3번, 일제 강점기에 1번, 모두 4번에 걸쳐 간행되었다.

『허암집』이 처음 간행된 것은 1511년(중종 6)으로 그와 학문적 교유가 있었던 청해군(靑海君) 이우(李偶)와 김사형(金士衡)에 의해서였다. 그들은 허암이 유배생활을 했던 의주와 김해에서 지은 시들을 3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그 후 정희량의 후손인 경상도 관찰사 정조(鄭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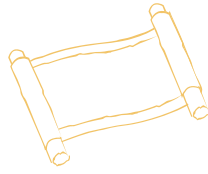


『허암집』

1621년 두 번째 간행하였고, 1897년 정희량의 11세손인 정광숙(鄭光淑) 등이 세 번째 간행을 하였다. 그리고 평안도 정주(定州)의 허암 후손들은 허암을 기리기 위해 1930년 허암사(虛庵祠)라는 사당을 세우고, 1940년 14세손 정종하(鄭宗夏)·정종은(鄭宗殷) 형제가 지방 유림의 도움을 받아 기록을 증보하여 네 번째 『허암집』을 연활자(鉛活字)로 간행하였다.

『허암집』에는 허암이 지은 시와 허암의 학통·가계·행적 등이 실려 있으며 특히 1940년에 간행된 『허암집』에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허암의 평안도 정주 입거 후 부터 생을 마치기까지의 기록이 실려있다.

임금의 덕에 대한 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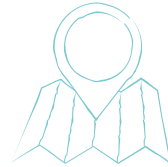


허암 정희량은 선비이자 관리로서 성품이 매우 올곧았다. 1495년(연산군 1), 그는 궁중에서 올리는 불교 의식이 그릇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유배를 다녀오게 된다. 1497년, 예문관 검열이었던 정희량은 폭군으로 평가 받는 연산군에게 임금이 행하여야 할 10가지 덕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처럼 그는 남다른 기개가 있는 선비였다. 허암의 상소는 『연산군일기』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정군심(正君心)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 납간쟁(納諫諍)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
- 경대신(敬大臣) 대신을 공경하는 것
- 숭학교(崇學校) 학교를 숭상하는 것
- 신상벌(慎賞罰) 상벌을 삼가는 것
- 근경연(勤經筵) 경연을 부지런히 하는 것
- 판현사(辨賢邪) 어짐과 사악함을 구별하는 것
- 억환시(抑宦寺) 내시를 억제하는 것
- 벽이단(闢異端) 이단을 물리치는 것
- 절재용(節財用) 재물을 절약하는 것

『연산군일기』 25권, 연산 3년 7월 11일 경술 4번째 기사

인천광역시 기념물
허암 정희량 유허지
 찾아오는 길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검바위역 하차 1번출구



버스
 1번, 13번, 90번, 93번
 71번, 72번, 310번, 800번
 검암사거리 정류장 하차



자가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0-2

CONTENTS

백일장 심사평	18
---------------	----

백일장 수상작

장원/학생부/운문/인천정각중학교 3학년 6반/임수빈	28
차상/일반부/운문/인천광역시 서구/김효정	29
차중/학생부/운문/화순고등학교 2학년 8반/황인주	30
차중/일반부/운문/인천광역시 서구/정길숙	31
차하/학생부/산문/두루고등학교 3학년 5반/손민성	32
차하/일반부/운문/인천광역시 서구/장영림	34
참방/학생부/운문/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2반/유가연	35
참방/일반부/운문/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권수민.....	36
장려/학생부/운문/용두중학교 2학년 4반/김다은	37
장려/학생부/운문/성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김예솜	38
장려/학생부/운문/인천담방초등학교 6학년 1반/이하율	39
장려/학생부/운문/서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조은비	40
장려/학생부/산문/부개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허유정	41
장려/일반부/산문/대구광역시 달서구/김미향	43
장려/일반부/산문/경기도 안성시/김소영	45
장려/일반부/운문/광주광역시 남구/김혜령	47
장려/일반부/산문/충청남도 천안시/이국섭	48
장려/일반부/산문/인천광역시 서구/이민의	50

미술대회 심사평	54
----------------	----

미술대회 수상작

대상/7세/다은유치원/장은수	56
최우수상/5세/미예뜰유치원/신강찬	57
최우수상/7세/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오유나	58
최우수상/7세/세라유치원/조윤설	59
우수상/6세/서연어린이집/양지민	60
우수상/6세/아이사랑유치원/이서우	61
우수상/7세/센트럴타운가현어린이집/임수아	62
우수상/6세/서연어린이집/전시은	63
우수상/7세/인천검단나래유치원/전은설	64
우수상/5세/GKI유치원/최정혁	65





2025년 제16회

허암예술제

심사평 및 수상작

<백일장>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심사위원 예선 심사평

김석구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며, 연령과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바람, 냄새, 기다림, 질문이었다. 접수된 응모 분야는 시와 수필이고 심사는 학생부와 성인부로 나누어 그중 수필 부분 예선 심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다양함에 놀랐고 폭넓은 치열한 삶들에 또 한 번 놀랐다.

수필은 자유로운 무형식의 글로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자기 고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번 심사를 대하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읽고 또 읽었다. 신선한 원고 쓰기의 문장구조 단락 구성과 문법 그리고 오탈자를 방지하는 퇴고에 대한 흔적을 살폈다. 수필은 자유롭지만 자기 고백을 독자들에게 내놓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쉽지 않은 고뇌의 글이기에 가벼워도 신중했는지를 살폈다. 응모작의 대부분이 자신의 체험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화려한 문구를 구사하며 지난 과거에 사건과 생각에만 머물고만 있는 지도 보았다. 이번 공모전에 내린 시제는 쉬운 듯하면서도 간단치가 않다. 바람, 냄새 시제는 오감(五感)을 동원하고 체험이 우려나지 않으면 읽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성찰의 내용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읽고 나서는 여운이 없는 흘러버린 빗물 같은 내용이 되기 쉽고, 질문이란 주제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겪은 일보다 주변 신변 잡기의 소소한 내용을



주제로 읽어야 할 독자들에게 필자 자신의 생각을 강요(훈계)하는 듯한 서술의 글들은 걸러 내었다. 특히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지식의 보고(寶庫)로 보아 가르치려 들면 공감하더라도 독자의 가슴에서는 멀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공모전에는 할머니,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철들어 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지나 버린 과거 시대를 회상하며 간접 경험한 이야기를 담담히 느낀 대로 열거하듯 쓴 내용들이 많았다.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서 세상에 내놓을 때는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문학적 감성으로 접근해야 살아있는 글이 된다. 읽는 독자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아 읽고 또 읽도록 품격을 유지하는 글이 자신의 품격을 올리는 글이다. 날이 갈수록 심사에 어려움을 느낀다. 삶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퇴고에 나오는 옥고(玉沽)이다.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심사위원 예선 심사평

고 현 자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이번 허암예술제 제16회 학생부와 성인부 백일장 시부문 예심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었습니다. 바람, 냄새, 기다림, 질문이라는 네 가지 시제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이 저 마다의 감성과 언어로 표현한 작품들을 정하며, 시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시제에 대해 각기 다른 시선과 상상력을 발휘하였으며, 바람의 자유로움과 변화 무쌍함, 냄새가 불러일으키는 추억과 고요함, 그리고 질문을 통해 삶과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깊이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학생부 참가자들은 순수하고 진솔한 언어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성인부에서는 보다 성숙하고 다층적인 관점으로 시적 상상력을 펼쳐내어 심사위원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를 통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길러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허암예술제가 여러분의 문학적 성장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향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조선 전기의 문신 허암 정희량을 기리는 허암예술제 제16회 시 부문 예심을 보게 되었다. <바람, 냄새, 기다림, 질문>이라는 네가지 시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목소리가 계절의 향기와 시대의 숨결을 품었다. 고향과 가족, 유년의 추억을 담은 시가 따뜻함을 전했고, 환경의 상처와 도시의 그늘을 그린 작품들은 현실과 맞닿은 시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심사 기준은 시제를 활용하여 작품을 잘 작성하였는지의 적합성과 독창성, 문장의 기술력과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대중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보았다.

모든 작품을 무기명으로 읽어 마음에 남은 시를 가려낸 뒤,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본선에 오를 후보를 선정했다. 학생들의 시(운문) 작품에서는 일상 속 낯선 아름다움을 길어 올리는 감각이, 성인 시(운문) 작품에서는 삶을 통과한 언어의 깊이가 돋보였다. 즉, 시는 사유의 방식이자 삶을 바라보는 눈임을 일깨워 주었다. 허암예술제가 그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축하와 응원을 전한다.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심사위원 예선 심사평

최속미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많은 편수의 수필 심사를 하면서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수필 문학의 관심도에 흐뭇해서였습니다. 학생들의 서툰 사유에 희망이 보였고, 일기 정도에 머문 작품일지라도 글을 써서 응모했다는 사실만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세대들이, 할머니·할아버지와의 사랑을 그리며 쓴 수필들이 더러 있어, 기특하면서도 밝고 바른 성장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수필은 치유문학이고 인성을 조율해주는 문학입니다.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갈등을 수필로 풀어낸다면 스스로 치유가 가능할 텐데, 그런 작품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좋게만 쓰는 게 수필이라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성인 수필은 철학적인 면이 지나쳐 묘사의 재미가 덜한 게 흠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지침서 같은 작품들은 수필 문학로서의 면모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억에 젖는 일은 아름다우나, 사유와 철학 없는 수필은 일기에 불과하다는 걸 간과한 작품들도 있어 안타까웠습니다. 수필 이론을 접하고 좋은 수필을 많이 읽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소재를 독창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한 좋은 수필들이 있어 후한 점수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쉽고 자유롭게 쓰는 게 수필이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좋은 수필들로 인해 수필 문학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나라답게 K-문학으로 정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 춘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예선 심사실. 응모 작품, 수필이 책상 위에 있었다. 시제, 「바람」, 「냄새」, 「기다림」, 「질문」을 원고지 12매 이하, 형식에 맞게 썼는지 심사했다.

응모 작품은 각자의 삶과 고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에서, 과거가 된 실제 경험과 미래와도 같은 감성으로 문학적인 향기가 배어나게 쓴 수필은 수채화 같다.

치열한 삶을 쓴 수필은 읽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차분한 문장력과 꼼꼼한 관찰력이 현장의 모습을 더욱 실감 나게 보여주어 영화 같았다. 독자이자 심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뿌듯했다.

감동적인 사연, 문학의 향기 없는 수필도 꽤 많았다. 논설문이나 설명문과 다를 바 없게 쓴 글이 그렇다. 목표지향의 삶을 산다면 자원봉사를 하고 문학의 향기 나는 수필을 쓰리라 믿는다.

정확한 문장 쓰기는 모든 문학 장르의 기본이다. 맞춤법과 띄어쓰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시제를 활용하여 작품을 잘 작성하였는지의 적합성과 참신한 독창성, 문장의 기술력, 작품의 완성도, 그리고 대중적인 공감도가 심사 기준이었다.

허암 정희량 선생의 선비정신이 모든 분께 전해지리라 믿는다.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심사위원 본선 심사평

고경숙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글을 쓰는 일이, 책을 읽는 일이 버리고 시행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문학이 자리 잡기 전에 시가 글을 쓰는 시간을 타하며 우리의 교육은 잠시 어지럼증을 느끼는 시기이다.

허암 예술제에 출품된 백일장 본선 작품들을 보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보았다면 선부른 판단일까?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은 진정성과 보편성을 탑재한 작품들이 꽤 있어 우열을 가르는데 애를 먹었다. 기본적 소양이 허암 정신을 이어받아 건강한 글, 진정성 있는 글, 성실한 읽기의 바탕으로 다져진 글에 눈길을 주었다.

독서의 다양화로 가용성 여휘를 늘리고 사유의 폭을 증대시키는 일은 도서관에 와서 도서관과 친한 이들의 몫이다.

바른 독서와 글쓰기로 훼손되어가는 모국어가 긴 미래의 빛나는 작품들로 빛나기를 바란다.

이런 행사가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김성달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제16회 허암 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은 저마다 고유한 시선과 색깔을 담고 있는 것이 많았다. 이따금 시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운 글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제에 충실한 시어와 문장을 구현하면서 글쓴이의 마음을 정성껏 담아내고 있었다.

특히 학생부 응모작들은 자기만큼의 고민과 사연을 시제에 얹어 꾸밈없는 진실한 언어와 마음으로 전달하고 있어 감동을 주는 작품이 많았다.

성인들의 응모작은 현실의 고민과 향수에 관한 사연이 세월과 함께 만들어진 연륜의 힘으로 적절하게 사연을 꾸려가는 작품들의 읽히는 힘이 좋았다.

선하신 분께는 축하를, 응모하신 분들께는 격려를 보낸다.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심사위원 본선 심사평


정 령 심사위원(한국문인협회 소속)

맑은 가을 하늘과 점점 더 무르익어가는 제16회 허암예술제 백일장 공모전을 직접 보았습니다.

공모주제인 '정직'을 말하면서 우리는 언제 정직했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지켜보면서 대리 만족으로 작가와 함께 그곳을 방문하는 경험도 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전국에서 올라온 본선 참가자들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문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품의 완성도나 기술 면에서 다들 근소한 차이로 본선에 오른 작품들인 만큼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는데, 작품으로 만난 여러 가지 '정직'과 '내가 좋아하는 곳'에 대한 추억과 감회도 새로웠을 뿐만 아니라, 자필로 소담스럽게 작성한 작품들을 대하면서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정말 문학이라는 낭만적인 감성을 온전히 즐겼으리라 느껴졌습니다.

원고지에 꼭꼭 눌러 쓴 작품을 보니, 일반부에서는 바쁜 나날의 연속 상에서 보이는 현실적인 고민도 보이고, 인생의 연륜에서 보이는 그리움이 짙게 깔린 작품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부 작품에서는 유독 독서를 통한 언어 유희적인 작품도 있었고, 문학의 참맛을 살린 공감되는 작품들도 있었습니다만, 허암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작품에서는 작품이 가진 깊은 사유나 알레고리로 인하여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었고 단연 공통된 의견으로 합치하였습니다.

단, 근소한 차이로 수상하지 못한 작품에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에 조금은 은유나 깊은 사유가 부족하였고, 사물을 보는 심미안보다는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나열하는 식의 얕은 글쓰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문학이라는 끈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 의지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응모와 더 오래 문학의 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수상하신 예비 작가에게는 마음 깊은 찬사와 박수를, 그리고 아쉽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모든 분에게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냅니다.



토마토의 우정

인천정각중학교 3학년 6반 | 임수빈

덜컹거리는 지하철에서
나의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토마토가 튀어 올랐다

빈자리는 왜 두 개뿐이었을까
파스텔톤 옷에 늘 달콤한 미소를
지을 줄 아는 너희는
과일이라 부를 만했다

그 뒤 지하철 창에 비친 나는
동근 미소를 짓지 않는 채소 같기도 했는데
너희와는 다른 이름을 지녔음이 분명했다

잘못한 사람도 없는데
나는 두드러기가 올랐다

간지러운 곳마다
설탕으로 문질렀더니
나도 이제 너희를 닮았는데

사람이 좋아질 때마다
나를 자꾸 잃어버리는 나는
내게 한 번도 정직하지 못했다



“ 물 깊은 집 ”

인천광역시 서구 | 김효정

엄마가 보고 싶은 날에는 오줌을 찼다.

다 큰 가시나가 오줌을 싸노
이래가 시집은 가겠나
누가 누가 소문낼세라
동네 하나뿐인 물 깊은 우물로
다라 하나 이불 하나 들고
대문을 나서며 눈을 흘기던

자가 와이라노 와이라노
긴 숨을 들 그릇에 담아 던지면
검은 우물의 얼음장 같은 호통에
백지 같은 다리가 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밟고 밟고
허둥걸음으로 들어선 대청마루에 오도카니 앉은 가시나
웅크린 어깨에서 눈물이 흐르던

개안타 개안타 올 일도 찼다
셋별 엮고 온 서늘한 손이
가시나 등을 쓸어내리면
통곡 같은 걸음음이
엄마의 가슴팍으로 내닫고
시집 못 가면 엄마랑 살아야 한다던
엄마가 보고 싶은 날에는
그 우물가에 선 어린 가시나가 된다



고향

화순고등학교 2학년 8반 | 황인주

그곳은
유연히 활공하는 바람 소리
노랑게 저가는 하늘빛
말갱게 피어난 들꽃 향기
같은 것으로 정의된 것이 아닌
이루어진 곳

소실, 형태, 변화
같은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도
존재 자체로 의미를 지닌 곳

존재가 의미인 공간
나를 이루는 시작점

언젠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영영 멀어지더라도,

그 모습을 잊더라도
의미는 변화하지 않고
나를 이루는 일부로
고요히 녹아들어
지친 날
그저, 담담히 나를 감싸안는다

지금도
어디선가 들꽃의 향을 품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 허암, 그 자리에 ”

인천광역시 서구 | 정길숙

목은 하늘 아래
허암의 자취 따라 오른 바윗길

서슬 같은 침묵,
검은 바위는 말을 아꼈다

신선로에 불 지피듯
한 사내의 뜻이 타오르는 자리

구름도 그 뜻에 젖어
천천히 걸음을 늦추고

풀 한 포기, 돌 하나
나 백성을 위한 시심
바위는 눕지 않았다

칼날 같던 세월에도 서 있었다

허암이여,
그대가 새긴 자리 위에
우리도 오늘을 새깁니다.



“ 엄마의 품 ”

두루고등학교 3학년 5반 | 손민성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으로 내내 희뿌연 눈이 쏟아졌다. 나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불안한 감정을 억눌렀다. 엄마는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의 눈동자에 두 갈래로 나뉜 빛이 고요히 머물렀다.

어두운 방 안에는 한기가 잘게 찢어진 형태로 맴돌았다. 보일러를 틀어도 겨울에는 집이 특히 추웠다. 온몸의 관절에 몽툰한 한기가 낀 느낌이었다. 나는 엄마가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갔다. 엄마의 온기가 고스란히 녹아든 이불 속은 따뜻했다. 붉게 언 내 코와 엄마의 가슴이 맞닿았다. 엄마에게선 희미한 복숭아 향이 났다.

아직 애야, 넌. 엄마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넘쳐 들어왔다.

나쁜 생각에 휘말릴 때나 학교에서의 슬픔이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품에 안겼다. 시험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때도,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엄마에게 갔다. 점점 작아지는 엄마는 자라는 나를 언제나 품에 들였다. 나보다 짧아진 팔로 등을 토닥여 주었다.

나는 고개를 올려서 엄마를 보았다. 텔레비전 빛에 엄마의 얼굴이 어슴푸레 보였다. 그림자가 드리운, 내가 사랑하는 얼굴이었다. 엄마의 콧바람에 잔머리가 날렸다.

엄마는 부드럽게 내 등을 쓸었다. 오늘 나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다. 이제 상처가 될 만한 상황에서도 끄떡없을 만큼, 단단하고 의연한 사람이 조금은 된 것 같기에. 단지 엄마의 품에 안긴 건, 상처를 줄 것 같아서 두려워서였다. 다름이 아닌 엄마에게.

엄마는 처음부터 내게 온기를 불어넣어 줬을 것이다. 내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엄마는 외로웠을지 헤아렸다. 또, 내가 곧 저 멀리 대학교에 가면 엄마는 다시 혼자라고 생각할지 막연했다.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가 엄마 상처 많이 줬지?”

머릿속에 중학생 무렵 엄마에게 소리쳤던 기억이 스쳤다.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한다고 욕박질렀던.

“아니야, 오히려 내가 해준 거에 비해 우리 딸이 너무 잘 커 줘서 대견하지.”

나는 엄마를 볼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눈 밑에 눈물이 고일 것 같았다. 대견해? 내가?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심장이 아린 동시에 기쁘게 뛰었다. 나는 엄마에게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가 좋아하는 곳은 엄마의 품이야.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거쳐 고등학생 그 어느 시절의 나에게나 꼭 맞는 곳이야. 언제나 나를 받아주는 곳은 이 세상에서 엄마의 품밖에 없어.



“ 고향집 뒷마루 ”

인천광역시 서구 | 장영림

하늘이 저만치 물러나고
부지런한 나목들이 곱게 물든
잎들을 차례로 떨구어 내는 가을날,
어머니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고향집 뒷마루에 앉으면
내 유년의 기억들이 유영을 한다.

추녀 끝 그림자가 뒷마루에 걸릴 때
키보다 높이 쌓은 벚짚 위에
홍시 두 개 올리고 걸어오시던
낮익은 얼굴
홍시의 향이 좋았을까?
앉을 듯 말 듯 따라오던 고추잠자리
흥건히 젖은 당신의 삼베 적삼이
그 유년의 내 작은 가슴에도
아릿한 통증으로 느껴져서
좋아하는 홍시를 차마 덥석 잡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면
“에잇, 요까짓 개미, 저리 가라!”
거친 입김으로 후후 불어 주시던,

가을바람 따라 떠나가신
나의 아버지.
그곳에선 안녕하신가요?
보고 싶습니다.

고향집 뒷마루에 앉으면
점점이 다가오는 유년의 기억들이
홍시처럼 빨갛게 익어만 간다.



“ 사랑하는 20세기에게 ”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2반 | 유가연

가능하다면 인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별하지 못했으니까요.
네온사인에 가려진 별들은 아직도
과거의 빛으로 말하고
나는 여전히
비틀즈를 노래하니까요.
꿈을 꾸었어도
어제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시간은 쌓이는 것이지 스쳐 가지 않으니까요.

내딛은 한 걸음 뒤엔
여전히 지나온 길들이 남고
내가 사랑하는 그곳은
복고를 사랑하는 나를 뺏속까지
하염없이 녹슬게 할 테니까요.

나는 너무 날카로운 시곗바늘보다는
나는 영원을 품는 모래시계를 가져서,
나는 아직 우리의 숨결에,
햇빛과 달빛과 채광이 들지 않는 흉곽 속에
일출로 떠나보내기엔 지나친
무거운 날들이 가라앉아 있다고

추억의 유물론을 믿으니까요.



“ 암자의 기울어진 지붕 아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권수민

칼날 같은 질문이 종이를 건너면
벗은 제 그림자를 따라간다.
검은 숨이 번져
비로소 태어난 하나의 이름

기억은 불에 구워진 그릇,
깨져도 빛을 품고
침묵은 말의 재로 쌓여
하늘보다 깊은 탑이 된다.

빛은 증언의 옷자락처럼 떨어지고,
그들은 진실의 무릎을 펼친다.
흔적은 발자국이 아니라
돌아오지 못한 이름의 체온.
남겨진 이유

시간은 들숨과 날숨을 섞어
존재를 다시 데우고
벗은 꺾을지언정
글은 남고
남는 것은 숨,
그 숨이 곧 온기.

부서져도 데워지고
불타도 꺼지지 않는
그 온기 하나로
세상은 영원히 숨을 쉰다.



거짓

용두중학교 2학년 4반 | 김다운

살랑살랑 불어오던 바람 한 움큼
저 작은 민들레 한 송이
이 따위에 꺾이지 않으려
자기가 저 크레인인 마냥
대담하게 서 있고
저 높은 크레인은
자기가 민들레인 마냥
이따위에 다소곳이 목례하네

자신을 거짓으로 물들인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에 뭘 그리 불만인가
그대들은 누구인가
꾸밈없는 그대들의 진실은 무엇인가

침병침병 잔잔히 다가오던
파도 한 움큼
딸랑 한둘 태운 나무 보트 한 척
이 따위에 뒤집히지 않으려
자기가 저 유람선인 마냥
거침없이 노 젓고
우람한 유람선은
자기가 나무 보트인 마냥
천천히 조심히 나아가네



“**닿을 수 없는 곳을 사랑한다**”

성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 | 김예솜

하늘을 사랑한다
아무리 아름답고 붉은 사과를
던진다 한들 하늘엔 닿지 않을걸
알면서도

지나간 시간들에 닿길 바란다
졸졸 흘러가는 시간에
나의 험험한 심장을 동동 띄워
흘려보내도 그 무엇도 변치 않겠지만

닿을 수 없는 곳에 닿은 나를
만나고 싶다
'나'라는 나무의
말라비틀어진 열매와 드리운 그늘을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닿을 수 없는 걸 알지만
닿을 수 없기에 그곳을 사랑한다



“ 사계절 내내 ”

인천담방초등학교 6학년 1반 | 이하울

토독- 토독-
주르륵 주르륵
빗방울이 미끄럼틀 탄다
우리만 있는 놀이터

쨍쨍-
까르륵 까르륵
햇별이 뜨겁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우리 둘만이 아닌 놀이터

쌩- 쌩-
휙- 휙-
시원한 바람이 인사한다
오늘도 북적북적 놀이터

사르르 사르르
하얀 눈이 내려온다
우리만 있는 놀이터

내 이야기 책에는 언제나
너와 그 놀이터



“ 사랑하는 사람의 곁 ”

서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7반 | 조은비

적색의 열병에 물들었던
지난 청춘에
세상이 외면하면
울렁이던 소녀의 심장
요동치는 심장과 막혀버린 숨구멍에
소녀는 닳을 내릴 곳이 필요했다.

두 손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나비가 있어
마치 네 눈 안에 수놓인
나비들처럼
빛나고 찬란하여
주위를 맴돌던 그 사람
반짝이는 두 눈을 외면 할 만큼
소녀는 자신을 잃지 않았나 보다.
자유로운 그를 만나
인생이란 춤을 추던 소녀였다.
그가 있는 곳에 닳을 내리고
열병에서 벗어나 굳세어진 소녀.
소녀가 사랑하는 그의 곁이
소녀가 사랑하는 모든 곳이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을 꿈꾼다.



“속보다는 걸음, 더 넓은 시야로”

부개여자고등학교 1학년 3반 | 허유정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다투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평소 가족과 자주 다투곤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엄마와 다투고 난 뒤이다. 사랑할 일은 아니지만, 엄마와 나는 성격도, 가치관도 정반대이다. 그러나 다툼의 원인이 성격 차이일까? 나는 상대의 행동에는 너무나도 솔직하지만, 자신에게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다툼 때, 상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지만,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한다.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고, 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싶고, 혹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바로 사과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아니다.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나 자신에게는 정직하지 못한다. 감정을 계속해서 꼭 참고 있거나, 과장되게 말하거나 아예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 난 평소 누군가와 다툼 때, 나의 감정을 많이 속이고 상대와 대화한다. 화가 나도 슬퍼도 아닌 척 한다. 내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만, 상대의 잘못이 더 크다고 탓하거나, 상대도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그 사건을 계속해서 되짚는다. 이것은 나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할까? 어젯밤, 엄마와 다투고 난 후, 한참을 울다가 침대에 누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대화의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대화방식이 잘못되었다. 그건 바로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가로채는 방식이다.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상대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건 이후, 화가 난 상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서 어떠한 물음에도 단 1%의 과장도 없이 나의 말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지만, 상대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 탓하지 말고 우선 나부터 바뀌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행위일 수 있다. 정말 옳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개개인보다는 사회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절반의 거짓과 절반의 진실 혹은 정직이 있다.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다툼이다. 그러니 신뢰 가득한 정직한 사회 속에서 웃으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조금만 더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이후, 상대의 탓을 해도 늦지 않다.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끝을 지어본다.



“ 팔공산 아래에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 김미향

나는 할머니와 세월의 추억이 깃든 팔공산을 좋아한다.

“엄마, 할머니 단풍 보러 가요. 지금 팔공산에 단풍이 절정이라.”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미 새벽의 여명이 깃든 무렵부터 일어나 세수를 하고 꽃단장을 하고 계셨다. 문제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차에 태우는 일이었다. 엄마는 왼팔, 나는 오른팔을 지탱하며 사투를 벌인 끝에 간신히 차에 탈 수 있었다.

팔공산을 가는 길은 가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고, 나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차를 세웠다. 창밖으로는 붉은 별처럼 반짝이는 단풍잎과 푸른 하늘은 청량함을 한껏 뽐내고 있었다.

“아이고, 내가 이쁜 손녀 덕에 좋은 구경한다. 눈이 호강한다. 오늘.”

할머니의 두 눈은 지난 세월을 품은 듯했고, 이내 두 눈가는 이슬을 머금은 듯 촉촉해져 갔다. 할머니는 창밖으로 단풍나무를 보았을까. 아니면 지나온 세월들을 보고 있었을까.

이후 나는 할머니가 TV에서만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않도록 팔공산을 자주 다녔다. 봄에는 흩날리는 눈송이 같은 벚꽃을, 여름에는 팔공산의 시원한 계곡을 함께 느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 올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명절이 되어 친정집을 방문했는데, 할머니의 눈빛이 이전과는 달리 흐릿해졌음이 느껴졌다.

“할머니 내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는 두 눈만 깜빡일 뿐 입술은 움짱달짝하지 않으셨다.

“내 이름이 기억 안 나요? 그렇게 예뻐하던 손녀인데?”

그 순간 나는 소리 없이 세상이 기울어진 듯했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해 온 친구이자 한 이불을 덮던 룸메이트였기에, 나에게는 할머니 이상의 존재였다. 할머니는 손주들 중에서도 유독 나를 예뻐해 주셨다. 그래서였을까. 할머니의 기억의 조각들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고, 부서진 파편의 조각들을 어떻게든 이어주고 싶었다.

가을의 나무는 비로소 자신의 무게를 안다 했던가. 붉게 물든 잎이 떠나갈 인생의 빛깔처럼 느껴진다. 낙엽이 땅으로 돌아가듯 사람도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요즘 할머니가 노쇠해지셔서 함께할 날이 많지 않음이 느껴진다. 언젠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이름과 지나온 추억들이 흐릿해지더라도 우리가 팔공산 아래에서 느꼈던 몽글몽글한 기분,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함께 웃었던 추억들은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여운으로 남겨져 있으리라고.

짙통 같은 더위와 매미의 울음소리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왔다. 나는 다시 운전대를 잡아본다. 할머니가 팔공산 나무 아래서 가족과의 따뜻했던 기억들을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길 바라며. 그녀의 지난 세월이 가을처럼 풍성했고, 누군가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음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말해본다.

“엄마, 할머니 팔공산에 단풍 보러 가요.”



“ 가정환경 조사서 ”

경기도 안성시 | 김소영

어릴 적 학교에서 부모님의 직업, 학력 등을 기입하는 가정환경 조사서를 나눠주었다. 학기 초에 그 종이를 받으면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야!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다 라고 친구들이 자랑스럽게 부모님의 직업을 이야기했다. 그때마다 나는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막노동을 하시는 아빠의 직업을 말하기 부끄러워서였다.

집에 와서 엄마에게 그 조사서를 내밀면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냥 니가 알아서 써내라고 하셨다.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나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아빠의 학력은 고졸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적었다. 엄마는 중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소득을 모두 거짓말로 적어낸 나는 그걸 들킬까 봐 선생님을 볼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났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아빠는 낡은 트럭을 몰고 나를 데리러 오셨다. 제일 친한 친구의 아빠는 어느 회사의 부장이셨는데 멋지고 큰 승용차를 타고 친구를 데리러 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아직도 막노동을 하며 낡은 트럭을 몰고 다니는 아빠가 가슴 깊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일하셨는지 어렵פות이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여름엔 더운 곳에서, 겨울엔 추운 곳에서 일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정말 힘드셨을 텐데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다. 상처로 가득했던 아버지의 손을 생각하면 입안이 쓰러왔다.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다. 3년을 투병하셨는데도 남은 시간이 석 달도 남지 않았던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낡은 노트를 하나 건네주셨다. 아버지가 그동안 몰래 쓰신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작가가 꿈이었다고 처음으로 말해주셨다. 하지만 못 배운 탓에 맞춤법도 잘 몰라 글쓰기가 힘들었다고 하셨다. 가난 때문에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평생 힘든 일만 하신 아버지가 정말 안쓰러웠다.

어릴 적 가난 때문에 배움이 짧았던 아버지를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 밋고 한심했다. 그때, 가정환경 조사서를 거짓으로 적어낸 나를 보며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속상해하셨을까. 내 자존심 지키려고 부모님 가슴에 생채기를 낸 나는 천하의 못 난 딸이었다.

이제 40대가 된 나는 어린 시절의 그 치기가 얼마나 쓸데없고 소용없는 것임을 크게 느낄 수가 있었다. 단 한 번도 가정환경 조사서를 정직하게 쓰지 못했던 내가 지금 다시 그 조사서를 쓰게 된다면, 이제는 아버, 엄마의 직업과 학력을 솔직하게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학력과 직업이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 모서리 ”

광주광역시 남구 | 김혜령

고속도로에 경적을 뺐으면
아버지의 어깨에서 내가 꿈틀댔다
태양을 심은 곳에 들어선
해바라기 한 송이

아버지는 햇빛을 먹으며
잠든 수험생의 수성펜 속으로
치매 할아버지의 고무신 속으로
주소를 찍었다

언젠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다
그는 고속도로의 영웅을
꿈꾼다는 답을 파스에 덧붙였다

나는 새벽녘 그림자를 걷던
꿈의 발걸음을 따랐다
내가 좋아하는 곳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아주 작은
모서리였다



“ 고향이 사라졌다 ”

충청남도 천안시 | 이국섭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원당리 679번지’ 내가 태어난 곳이다. 원적이라고 부르는 곳, 본적은 혼인신고를 하며 바뀌었다. 인천으로. 원적, 본적, 호적, 이제는 거의 소멸된 단어들이다.

내 고향은 정지용의 향수에서와 같이 얼룩빼기 황소가 울고, 실개천이 휘돌아 흘렀다. 그 황소 등에 타기도 하고, 황소가 끄는 수레를 타기도 했다. 실개천에서 송사리를 잡고 떡을 감았다.

고향은 그 단어만으로도 설레임이고 그리움이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저녁의 산길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고향이라는 말에 설레이는 건 내 세대가 끝이 아닌가 생각된다.

추억이 없는 의미가 있을까?

학교 앞 불량식품에 열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찾아간 축제장에서 자치기에 딱지치기에 즐거워하는 건 어른들이다. 추억이 없는 아이들은 시큰둥하다.

요즈음 아이들에게 고향은 어떻게 다가올까? 도회지의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고향이 의미가 있을까? 단지, 지역에 따라 사투리를 쓰는 정도. 그리고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이 있다면 아버지의 고향으로 그 집을 생각하지 않을까?

김포에서 태어나 국민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살았지만, 불과 몇 년 안 되는 그 기억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만든 추억보다 많다.

보리수까지 꺾어주고 별초하시는 아버지. 밭두렁에서 콩튀기 해 먹다 산소를 모두 태우고, 장마철 개울물이 불으면 징검다리를 건너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징검다리 대신 도움닫기를 해서 재빨리 뛰면 물을 밟고 건너도 발이 젖지 않는 것도 알았고, 비라를 많이 주워 파출소에 내리 갔다가 무서워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새참으로 갖다 드리라는 막걸리를 훌쩍훌쩍 마시고는 길에 주저앉아 잠들고, 십 리 길을 걸어서 장릉으로 소풍을 가고, 장기리 누님 댁, 선주지리 고모님 댁, 지금은 모두 인천이 된 지명들이다.

내가 태어난 집이 있던 집성촌은 진작에 개발이 되어 연립주택이 들어서고, 몇 년 후 선산도 개발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였는지 찾을 수도 없다. 다니던 학교도 아파트 단지 사이로 이전해서 이름은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도 앞에 김포가 떨어지고 인천이 붙었다. 허암 선생의 유허지도 60년대엔 알려지지 않았었다. 물론 나쁠 것은 없다. 비록 고향 마을은 사라졌지만 내 가슴 속 추억도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이제 내 머릿속에서 새로운 고향을 만든다. 현재의 행정구역대로 김포가 아닌 인천으로. 그리고 허암선생의 유허지를 돌아보며 기왕이면 자랑거리가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는 고향을 만든다.

비록 몸이 찾아갈 얼룩빼기 황소가 우는 고향은 사라졌지만, 머릿속에 추억이 있고 그리움이 있는 마음으로 찾아갈 실개천이 휘돌아 흐르는 고향을 오늘 만든다. 추억 속 내 모습보다 훨씬 커버린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 정직의 무게 ”

인천광역시 서구 | 이민의

어린 시절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을 고르라고 한다면 ‘정직’이지 않을까? 항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학창 시절 교육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뒤로하고 성인이 된 지금 난 나에게 있어 정직이란 단어의 의미를 다시 적립하는 중이다.

흔히들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나에게는 몇 번이나 선의의 거짓말을 방패 삼아 진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처음 간호사를 시작할 때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했었다. 특히나 암 병동에서 근무했던 나는 회진 중 예후가 나쁜데도 막상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시는 교수님을 보며 ‘빨리 진실을 알고 예후를 준비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희망 고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었었다. 그런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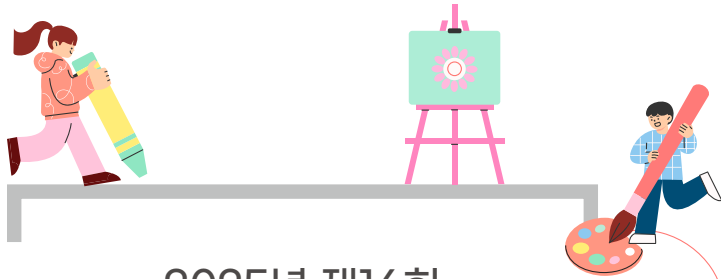
30대 초반의 그녀는 단순히 지속되던 기침 때문에 시행했던 검사에서 림프종을 진단받았다. 의료진이 예상한 예후는 단 6개월. 내년에 결혼을 앞두었다는 그녀의 사연을 알고 나니 “저 괜찮겠죠?”라고 물어보는 그녀에게 선뜻 진실을 정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낮에는 면회 오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환하게 미소 지으며 씩씩한 듯 보이던 그녀는 밤이 되면 혹여나 울음소리가 새어 나올까 두려운지 이불속에서 한참을 흐느꼈다. 이전에는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응대할 수 있도록 상황을 회피했었는데 처음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 모르게 6개월을 카운트다운해가며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그녀의 눈빛이, 치료를 받는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병동 식구들 모두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6개월을 훨씬 넘겨 생존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내 업무에 있어 정직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의 내가 생각한 정직이란 단순히 솔직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태도'의 의미였다면 현재의 내가 생각하는 정직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직을 핑계 삼아 누군가에게 비수가 되어 희망을 무너트리진 않았는지 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좋은 방패 뒤에 숨어 정직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나의 정직이 누군가를 무너트릴 수도 있는 힘을 가졌다는 생각에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지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중심을 잘 지키며 정직의 무게를 견디고자 한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나는 매일 업무를 마치며 생각할 것이다. 과연 나는 오늘도 정직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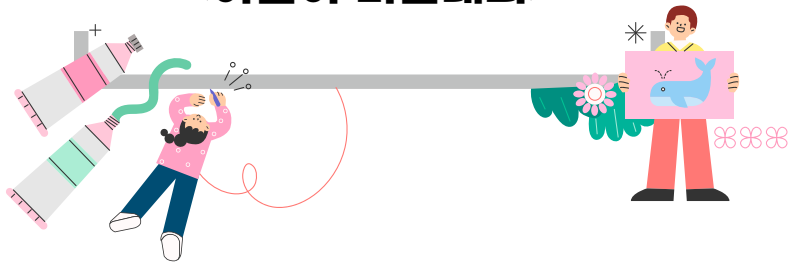


2025년 제16회

허암예술제



심사평 및 수상작
<어린이 미술대회>



제16회 허암예술제 어린이 미술대회 심사위원 심사평


이창구 심사위원(인천미술협회 소속)

이번 미술대회는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를 통해 어린이의 맑은 마음과 상상력을 만나보는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수상작에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지금을 잇는 자유로운 상상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사는 어린이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담겼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색채를 통한 감정표현력, 구성의 창의성, 자신의 주제에 대한 상상력과 표현의 독창성 등을 특히 중점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상의 즐거움과 창작의 자신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참가 어린이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철희 심사위원(인천미술협회 소속)

시간여행이라는 주제에 맞게 그림 속 요소들(인물, 배경, 사물)이 화면 안에 조화롭게 배치되었는지, 어린이 눈과 마음으로 색감이 전체 분위기와 감정을 잘 표현하였는지 보았다. 그림 한 장에 담긴 이야기가 얼마나 풍부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지 평가하였다.



“ 다시 가고 싶은 가족여행 ”

다음유치원 | 장은수





“**공룡시대 공룡나라**”

미예뜰유치원 | 신강찬





“나의 꿈 아이돌 무대”

경인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 오유나





“시계 자전거를 타요”

세라유치원 | 조윤설





“ 공룡시대 ”

서연어린이집 | 양지민





“행복한 동물 축제”

아이사랑유치원 | 이서우





“ 아기가 된 엄마 ”

센트럴타운가현어린이집 | 임수아





“
어린시절
”

서연어린이집 | 전시은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인천검단나래유치원 | 전은설





“
고대 아마존 열대를 시간여행하게 된
카카오프렌즈 친구들
”

GKI유치원 | 최정혁



2025년 제16회

허암예술제

우수작품집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발행인 정군섭

기획 서덕현

편집 조혜린, 정다희, 김정선

발행처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15, 쓰리엠타워 7층

T. 032-582-4341

F. 0502-582-4742

H. www.insecc.kr

표지디자인 아츠비

인쇄·출판 원문사(032-573-4982)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며, 작품집은 2차 저작물 활용 동의를 받은 후에 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